

넛신보 텍스타일의 유니폼 소재

- 2010년 춘하절에는 쿨 메소드 판매 시작

넛신보 텍스타일의 텍스타일 영업부 텍스타일과(課)는 2010년 춘하절의 워킹 유니폼 (working uniform) 소재를 기획하여 ‘쿨 메소드(cool-method)’를 판매하기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 소재는 제직, 편성·가공 기술을 융합하여 통기성이 뛰어나고 흡한 속건(吸汗 速乾)과 피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차세대 형태 안정 가공 소재(次世代 形態 安定 加工 素材)도 개발 중이다.

쿨 메소드는 넛신보 텍스타일이 이제까지 가꾸어온 특수 방직·제직·조직 연구(特殊 紡績·製織·組織 研究), 가공 기술 개발(加工 技術 開發)을 종합적으로 짜 맞추어, 춘하절 소재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잘 갖춘 소재들이다. 넛신보에 의하면 현재의 시황(市況)으로는 대형 신소재(大型 新素材)를 제안하여도 양(量)이 큰 소재를 채용한다는 것은 시장 마인드(市場 mind)로 봐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추동절 소재는 합섬사(合纖絲)용을 중심으로 완성형에 가까운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면방적으로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춘하절의 양감(涼感) 소재를 적극 판매하겠다.”고 하며, 기존 소재를 브러시 업(bush up : 잘 솔질하여 다듬기)하여 고도(高度)로 제안할 것이다.

쿨 메소드로는 뛰어난 통기성, 흡한 속건, 피부에 붙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꾸준히 인기가 있는 항균 방취 가공(抗菌 防臭 加工)의 ‘Ag 플래시(銀 flash)’, 방오(防汚) 가공인 ‘듀얼 클린(Dual clean) III’를 짜 맞추어 ‘양감 소재 플러스 알파(涼感 素材 plus α)’의 기능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10년 춘하절에는, 시기를 맞추지는 못하겠으나, 대형 신소재(大型 新素材)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형태 안정 소재를 연구 개발 중이다. 얼마 전에 이 회사가 개발한 셔츠지용 신세대 형태 안정 가공인 ‘아폴로 가공(Apollo 加工)’과는 별도로 워킹 유니폼이 요구하는 강도, 잔털에 의한 백화 방지(白化 防止), 높은 염색 견뢰도 등을 모두 살리는 혁신 가공(革新 加工)이 될 것 같다.

면 100%뿐만 아니라 셀룰로스계 섬유(cellulose系 纖維) 전반에 가공할 수 있으며 다층 구조사(多層 構造絲)를 사용하는 데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한다. 2010년 추동절까지는 시장에서 상품화할 생각이다. 또한 워킹 유니폼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텍스타일과가 다루는 캐주얼 팬츠(casual pants)지 등에도 응용해 볼 방침이라고 한다.♣